

共委再開と美蘇書翰(下)

戰爭再起防止

四相代理會の對獨媾和案

그런데 이에 대한
다음을과 같다.

☆☆☆☆

이를考察하며
不信任이 없

獨使言非

條約署名像定
百萬五十年當代
에게 十八日
斷發表하엿

一 朝鮮人들이 自己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恩惠被我國 美國國

그런나 今版의 田畵內容
그 好意를 酬하는바이다
그러나 今版의 田畵內容

民議選出의 四氏

合作代表會召還

師을다
 眞靈의 右副代表로 派遣
 한 同院選出의代表 金奎植
 元甘助 安玉璽 金明鑒四氏

召選하기로 十八日會議에
다음과같이 決議하였다.

開闢하고 現在民

單爭悲恸

【巴里十八日發A.P.會同】西
貢來電謂依計日 越南大統帥
胡志明博士云 越南國民則
時越

此같이 擧하였다 한다.
事의 恐怖는、刻一刻増
하여 가 있다. 그리且戰
通信에 依하
十五日 非限
三千名以上을

長期以上으로
長期
曰 稼動시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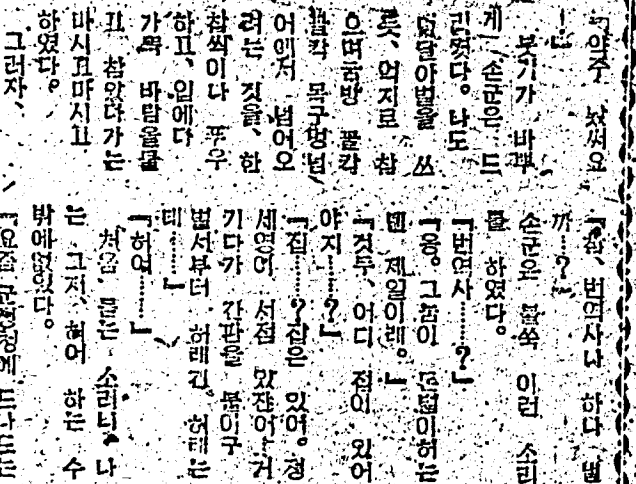
1

[illegible][illegible][illegible]

三八이방 초전의 현행지 파 각방면의 초보로 주드만
 卞(地價) 量 十兩로 中價 구경창에서 是 發서유자
 하고 지세는 甬정시마의비 만일시마의 發 發하거
 유에 의하며 토지조합파로 영정청은 간정하야 하
 八

市內警戒森嚴

반란운동의 미묘한 움직임
기보한바와같이 전국학생
총연맹은 七月日 마산·미포
아이씨·영국에 임치구급을

[illegible][illegible][illegible][illegible]

休
자 앉갸고
八일 판하거
에 사말하엿다

全國學生團聯會 走國
一、一八反託國華團案
定機救火會

手族的 *omnibus* 自由雜誌